

# 사랑의 추억을 떠올리지 않기 위해 노래를 금지시킨 한 사내의 이야기

어떤 음악이 금지곡이라는 달갑지 않은 운명에 처하게 될 때, 우리는 파블로프의 불쌍한 개처럼 정치와의 불화를 그 이유로 떠올리게 된다. 특히 역사의 긴 호흡으로 볼 때는 어제 그제까지, 음반을 만든 이나 그 음반을 듣는 이 모두가 바라지 않았던 '건전가요' 라는 트랙이 반드시 삽입되어야만 했던 대한민국에서는.

글\_최윤구

## 영화 <카사블랑카>와 금지곡 <As Time Goes By>

어떤 음악들은 지극히 사적인 이유 때문에 금지곡이 되기도 한다. 당연히 그 음악은 그 곡을 금지시킨 사람에게만 금지곡이므로 당사자의 골방을 벗어나는 즉시 거리낌 없이 울려 퍼지게 된다. 다행스러운 것은 가령 그 곡이 당사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인기곡이라고 하더라도 그 또는 그녀가 필사적으로 피하고 싶어 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들러올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하지만 정치권력조차도 완벽하게 틀어막지 못하는 것이 음악인 만큼, 언젠가는 거리에서 느닷없이 자신만의 금지곡에 노출되는 일을 피할 수는 없다.

미국의 영화 평론가 로저 에버트는 영화 <카사블랑카>에 대해 "사랑하는 남녀가 더 고귀한 목적을 위해 사랑을 희생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필자에게 이 영화는 사랑했던(이 동사가 과거형이라는 점이 잘 나타내 주듯이 그것은 지나간 일이다) 여자와의 추억을 떠올리지 않기 위해 특정한 노래를 금지시킨 한 사내의 이야기로 다가왔다.

영화의 줄거리는 언급하지 않기로 하자. 모르면 무식할 정도로 고전이 되어 버린 영화여서가 아니라, 이 글에서는

중요치 않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사랑을 했고, 무슨 이유에선지 여자가 떠났으며, 남자는 거의 전적으로 그녀를 잊기 위해 먼 곳으로 떠났다는 것이다.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는 곳에서라면 드물지 않게 일어나는 게 이 영화의 배경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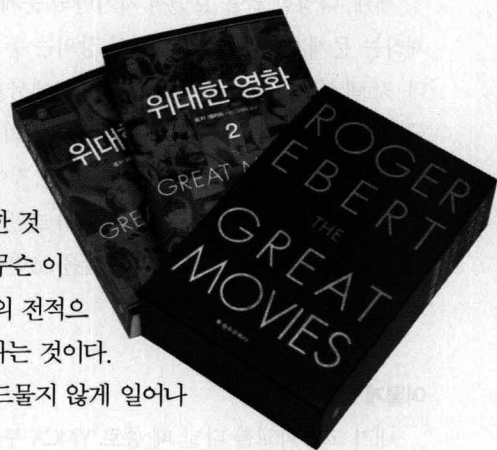
그런데 "세상의 많고 많은 도시의 모든 술집 가운데서도 하필이면 우리 술집에" 사랑하는 그녀가 들어온다.

그리고 여자는 남자의 술집에서 금지되어 있는 노래, <As Time Goes By>를 불러달라고 흑인 피아니스트에게 부탁한다. 멍칫거리던 흑인 피아니스트는 자신의 반주에 맞춰 노래를 부른다.

## <As Time Goes By>를 부른

### 제인 몬헤이트의 <In Full Swing>

모든 사람이 실연을 경험하는 것은 아니다. 더구나 실연당한 사람 모두가 금지곡을 갖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겪어본 사람은 안다. 실패한 사랑의 추억과 음악이 결부되어 버리고 말았다면, 그 뒤로 그 음악을 듣는다는 것은 영영 사랑



<위대한 영화>(전2권)

로저 에버트 지음 | 윤철희, 최보은 옮김 | 을유문화사  
1권 692쪽, 2권 695쪽 | 각권 값 2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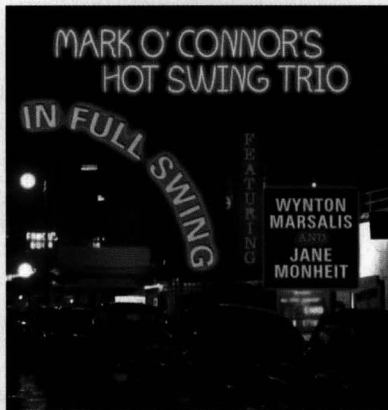
을 잃어버리고 말던 바로 그때의, 도돌이표에 의해 반복되는 음표들처럼 완벽한 추체험(追體驗)을 뜻한다는 것을 말이다.

겪어 본 사람은 이해할 것이다. 여자의 부탁으로 쓰라린 기억이 담긴 곡을 연주하는 흑인 피아니스트에게 화를 내며 “그 곡은 다신 연주하지 말랬잖나!”라고 소리지르는 남자의 마음을.

그 곡이 연주되기를 원하지 않았던 남자, 험프리 보가트의 바람과는 상관없이 〈As Time Goes By〉는 영화 〈카사블랑카〉만큼이나 인기 있는 고전의 반열에 올랐다. 술한 명가수들과 명연주자들이 이 곡을 노래하고 연주했지만, 근래 나온 것 가운데 가장 필자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제인 몬헤이트의 것이다.

인기와 실력이 반비례하지 않는 편인 재즈 보컬 분야에서 가장 인기 있는 현역 여가수 중 한 사람이고, 내한공연을 전후해서 국내에도 적지 않은 팬층이 형성되었음에도 〈As Time Goes By〉를 부른 그녀의 〈In Full Swing〉은 잘 알려지지 않았다. 아마도 장르를 넘나드는 바이올린 연주자 마크 오코너의 음반에 그녀가 게스트 아티스트로 등장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어지간히 눈 밝은 그녀의 팬이 아니었다더라면 모르고 지나쳤던 모양이다.

수록곡 열 곡 가운데서 네 곡을 부른 제인 몬헤이트는 〈As Time Goes By〉에서 또 한 명의 게스트로 아티스트 윈톤 마살리스와 함께 이 노래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멋지게 해석해 낸다. 최상급의 가수들만이 할 수 있는 편하고 쉽게, 나지막하게 속삭이는 그녀의 노래뿐만 아니라 마크 오코너의 바이올린, 윈톤 마살리스의 트럼펫 모두 감정을 절제하고 있지만 듣는 이의 감정의 파고는 되레 가팔라진다.



**‘이야기꾼’ 영화 평론가, 로저 에버트**

블루 레이니 HD-DVD나 하는 다음 세대의 매체들이 나오는 바람에 그렇잖아도 우리나라에서는 불법 다운로드 때문에 맥을 못 추던 DVD는 시장에서 자리도 잡기 전에 퇴출되는 모양이다. 덕분에 헐값에 살 수 있었던 스페셜 에디션 버전의 〈카사블랑카〉 DVD에는 평론가 로저 에버트의 코멘터리가 수록되어 있다. 미국 영화 평론계에서 손꼽히는 인물인 에버트의 대중적인 명성은 그가 1975년부터 진행해 온 영화쇼에서 비롯되었는데, 그는 코멘터리에서 오랜 방송 경험을 통해 쌓은 ‘이야기꾼’ 으로서의 자질을 마음껏 발휘한다.

오해 없기를 바란다. ‘이야기꾼’이라는 표현은 대학에서 영문학을 전공했고, 1975년 영화평론가로서는 최초로 풀리처상을 받은 에버트의 문학적 재능을 폄하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전문성을 대중과 차원 높게 교신할 수 있는 능력의 반대말쯤으로 여기는 비평가들과는 거리가 먼, 좋은 의미에서의 대중성을 표현할 다른 좋은 표현이 떠오르지 않는 필

자의 빈곤한 상상력 때문이다.

코멘터리가 시작되면 우리는 전문성과 이야기꾼의 자질이 행복하게 결합되어 있는 매우 희귀한 사례를 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 영화가 시대를 초월해 얼마나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는지” 로 운을 댄 에버트는 이 영화와 관련된 온갖 정보들을 숨쉴 틈 없이 쏟아낸다. 1942년 미국의 참전 직후에 제작사인 워너가 이 영화의 원작을 검토했으며 (더 정확하게는 일본의 진주만 공격 다음 날), 원작은 〈모두 리의 카페로 모인다〉는 희곡이었다는 것은 순수한 정보이겠지만, 영화를 보면서 항상 운다는 고백은 평론가의 가장 큰 사명인 가치평가에 해당된다. 에버트에 의하면 “인간의 선함을 믿는 사람이 나오는 영화는 감동적이거나 나름”이며, 그래서 자신은 이 영화를 50번이나 보았다고 말한다.

이런 당연한 이야기를 분석이랍시고 내미는 평론가에게 분개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가 분석해준 영화들을 다 보고 나면 그것이 얼마나 간명하고 날카로운 분석이었던지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야말로 평론가로서 에버트가 지닌 가장 큰 미덕이다. 에버트의 코멘터리는 DVD라는 매체가 화질이나 음질의 우수성 같은 물질적인 우위가 아닌 콘텐츠의 측면에서 이전 매체들에 비해서 가졌던 매력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준다. 영화를

사랑하는 이들에게 이 영화를 50번이나 본 평론가의 해설과 제작과정과 뒷이야기에 얽힌 다큐멘터리, 극장 예고편과 사석 씬 등이 담뿍 담긴 DVD는 최고의 선물이다.

**로저 에버트가 고른 명작들에 대한 ‘코멘터리’, 〈위대한 영화〉**

로저 에버트의 대표저작의 하나인 〈위대한 영화〉는 제목 그대로 저자가 여태껏 보아 온 영화들 가운데에서 고른 명작들에 대한 ‘코멘터리’다. 수준은 영화 〈카사블랑카〉의 오디오 코멘터리에 못지않다. 에버트는 드물지 않게 첫 문장에서부터 자신이 비평의 대상으로 삼은 영화에 대해 단정적으로 정의를 내리곤 하는데, 이를테면 영화 〈대부〉는 폐쇄된 세계를 다룬 이야기다. 본질적으로 악할 수밖에 없는 캐릭터를 관객들이 공감하게 되는 것은 그 때문이라는 것이다. 영화의 미학적 스킴 일과 그에 못지않게 방대한 상영 시간에 압도된 관객이 자신이 본 것이 과연 무엇이었는가를 깨닫게 해주는데 이보다 더 좋은 지침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위대한 영화〉 두 권에는 이런 지침이 무려 이백 하고도 열 개나 있다! 자, 우리 모두 행복한 비명을 질러보자. **김**

최윤구 님은 〈월간 코드〉 〈조이클래식〉 〈월간 오디오〉 〈What hi-fi〉 등에 음반평론 칼럼을 기고하고 있으며, 국민대에 출강하고 있다.